

국내 항공사, 경영정상화 본격화

# 새로운 일상으로 날개 활짝... 사이판·하와이 등 '풀부킹'

**제주항공 5일 골프관광 전세기 운항  
에어서울 사이판 노선 운항 검토  
대한항공 하와이·괌 등 정기편 확대  
아시아나 인천~방콕 노선 매일 운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항공사들이 주요 선진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면서 수요가 회복 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속 항공 화물 사업으로 실적 방어에 나선 국내 대형 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운항 확대에 실적 상승세를 이어간다. 화물 사업 경험이 부족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LCC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최근 살아나는 분위기가.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7월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탑승률은 10~20% 안팎을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추석 이후로 항공업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이는 국내 백신접종률 증가와 세계 주요국들의 '위드코로나' 도입으로 해외 입국시 격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둔 지난달 31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여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면제 가능한 휴양지 위주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하와이와 괌 등 해외 노선에 대한 예약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1월~12월 왕복 누계 예약 기준 하와이와 괌 노선은 매주 평균 1000명 이상 예약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과 사이판 노선에 대한 예약률이 평균 80%를 넘어섰다. 7~8월 트래블 버블 여행객 수요가 한 편당 10명 이하였던 것과 비교해, 추석 연휴 이후 매 편 100명 이상의 예약을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율이다.

LCC 업계는 국제선 운항으로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제주항공은 추석 이후 인천~사이판 노선 예약자가 1500여명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은 10월 3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1회 운항, 총 9회 운항 예정이며 미국 보잉사의 B737-800NG기종(189석)을 띄우고 있다. 현재 예약률은 90%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과 사이판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현재 12월 말까



대한항공은 3일부터 인천~호놀룰루(하와이) 노선을 주 3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지 예약이 힘든 상황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주 1회 185석 규모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예약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은 사이판의 경우 그동안 여행객이 현지 도착 후 5일간 격리하는 숙소를 켄싱턴호텔로 제한적으로 운영했다"라며 "최근 사이판에서도 여행객 증가에 따라 격리 시설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사마다 국제선 확대 운항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11월 3일부터 인천~호놀룰루(하와이) 노선을 주 3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정기편 1회, 부정기편 2회로 운항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정기편만 운항했던 인천~시드니·오�클랜드 노선은 주 1회 정기편을 운항한다. 주 1회 운항했던 인천~괌 노선은 이미 이달부터 주 2회로 확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주 3회 운항하던 인천~태국 방콕 노선을 11월부터 매일 운항으로 확대한다. 인천~싱가포르 노선은 주 3회 운항에서 11월 15일~30일에는 주 4회,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는 주 5회로 증편된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12월 인천~괌 노선을 주 2회 신규 운항하고, 주 1회 운항 중인 인천~사이판 노선도 12월 22일부터 주 2회로 확대한다.

제주항공은 11월 5일부터 인천~태국 치앙마이 노선에 골프 관광 목적의 전세기 운항에 나선다. 에어서울은 12월 23일부터 인천~괌 노선을 주 2회 일정으로 재운항하고, 사이판 노선 운항도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 증가와 위드코로나 도입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 휴양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엔 국제선 운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오징어게임 속 달고나·구슬치기 체험해보세요”

**식음료업계, 공간·체험형 마케팅 활발  
신세계푸드 '신세계분식' 팝업스토어  
매일유업 김장체험 패키지 상품 마련  
호가든 아티제 협업 '보타닉 힐링존'**

11월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식음료 업계가 공간·체험형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패션 편집숍 '수피'에서 LG전자의 '금성오락실'과 협업해 '신세계분식' 팝업스토어를 열고 12월 19일까지 '올반' 가정간편식 알리기에 나섰다.

'신세계분식' 팝업스토어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고 즐거움을 찾는 MZ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10여종의 올반 메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다. 대표 메뉴는 '청양마요 찰맛도그', '옛날통닭 반마리', '쓰욱~ 금성 떡볶이' 등 3종으로 먹는 재미에 사진 찍는 재미를 더했다.

신세계푸드는 '신세계분식'을 방문한 뒤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고, 팝업스토어 내에서 구슬치기와 달고나 뽑기 등 이벤트를 진행하며 MZ세대와 적극 소통한다.

김장철을 맞아 농어촌에서 진행되는 체험 마케팅도 있다. 매일유업이 운영하는 상하농원은 전북 고창의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에서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달간 '김장푸드트립 패키지'를 운영한다.

김장푸드트립 패키지는 상하농원에



고객이 자녀와 함께 상하농원에서 운영하는 '김장푸드트립 패키지'에 참여해 김장재료를 수확하고 있다. /매일유업

서 정성껏 따 흘려 재배한 김장재료(배타배추, 무, 갓, 양파 등)를 수확해 김장김치를 담그고, 김장김치와 어울리는 통영 굴과 고창산 돼지고기로 만든 굴보쌈 정식을 즐기는 코스로 구성됐다. 또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숙박과 함께 노천 스파 이용도 제공한다.

주류 업계도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 호가든은 프리미엄 유러피안 카페 브랜드 '아티제'와 협업 프로젝트로 '보타닉 힐링존'을 운영한다.

호가든 보타닉 존은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을 위로하고, 아티제의 프리미엄 휴식과 호가든의 여유로움의 가치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기획 의도에 따라 아티제 특유의 따뜻한 우드 톤과 호가든의 보타닉 콘셉트를 담은 공간으로 꾸며졌다. 푸르른 식물들과 함께 모두 막을 모티브로 한 공간 구성 등으로 마치 숲에 피크닉을 나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색적인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는 협업 메뉴도 선보인다. '보타닉 페어링' 세



호가든은 프리미엄 유러피안 카페 브랜드 '아티제'와 컬래버 공간 협업 프로젝트로 '보타닉 힐링존'을 운영한다. /오비맥주

트는 호가든 보타닉과 가장 잘 어울리는 베이커리(3종 중 택1)와 호가든 보타닉 1병으로 구성했다. 이번 세트는 코엑스몰점, 동부이촌점, 서초역점, 타워팰리스점, 제주매종글래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도 위스키 테이스팅을 접목한 차별화된 브랜드 체험 캠페인인 '발렌타인'의 '시간의 느림 속으로 들어가다(Time Slowing Experience) 브랜드 체험스페이스'를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강남역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운영한다. 이번 체험스페이스는 발렌타인 브랜드가 지향하는 시간의 가치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마케팅에 제약이 컸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한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체험형 매장 마케팅을 강화해 전보다 폭넓은 고객층의 유입과 함께 고객 체류 시간을 늘려 구매율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주요 선진국 방역 강도 완화 이동성 향상·소비회복 가속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韓, 대면서비스 경기개선 기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추진에 따라 대면서비스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드코로나 추진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경제주체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고, 소비회복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 선진국 위드코로나 정책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이 감염병과 공존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역조치 강도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은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률 상승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일상적 경제활동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한은은 위드코로나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방역강도의 결정요인(백신접종률, 중증환자 수)에 따라 ▲위드코로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국가 ▲보건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크게 구분했다.

먼저 영국·덴마크·스웨덴 등 위드코로나 정책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국가는 대체로 백신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방역강도를 꾸준히 하향 조정해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델타변이 확산 이후 방역조치 강도 조정 시 중증환자 수 증감을 주로 반영했다.

위드코로나 정책 추진 이후 백신효과

에 힘입어 각국의 치명률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확진자수 추이는 국가별로 상이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지역 내 빈번한 대면접촉이 불가피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세가 비교적 확대됐다.

위드코로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의 방역조치 완화는 경제주체의 이동성 향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비회복에도 상당히 기여한 모습이다.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소비회복 효과는 음식점·여가시설 이동성이 식료품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대면접촉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경제주체의 민감도 하락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대면서비스의 경기개선에 크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신동수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방역기조 전환은 경제주체의 이동성을 강화시키고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각국의 소비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백신접종률이 70%(10월 23일 기준)를 상회하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대면서비스의 경기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